

광주·전남 '자녀 있는 신혼부부' 평균 자녀수 전국 최고 수준

무자녀 비중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자체들 우대정책 등 효과 40% 자녀 없고 90% 빛 있어...전국 100만쌍 처음으로 무너져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혼인과 출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지난해 전남지역의 지자체들이 신혼집 지원 등 신혼부부 우대 정책 등에 주력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광주·전남 역시 여전히 신혼부부 수는 감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서 신혼부부는 혼인 5년차 이하 부부로 정의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신혼부부 수는 2만 5954쌍으로, 전년(2만7708쌍) 대비 6.3% 감소했다. 초혼이 2만901쌍, 재혼은 4960쌍이었다. 지역구별로는 광산구가 8210쌍으로 신혼부부가 가장 많았고, 북구(7876쌍), 서구(4352쌍), 남구(3218쌍), 동구(2300쌍)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무자녀' 부부는 8418쌍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전국(47.5%)보다 7.2%포인트(p) 낮았다. 신혼부부들의 평균 자녀 수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0.73명을 기록했다.

광주 신혼부부들의 평균 소득은 6239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연소득 3000만~

5000만원 미만(21.2%)과 7000만~1억원 미만(21.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5000만~7000만원 미만(20.8%), 1000만~3000만원 미만(14.4%), 1억원 이상(14.0%) 순이었다.

광주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은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과반수 이상의 대출금이 1억원 이상에 달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 미만의 비중이 28.9%로 가장 높았고, 5000만원 미만(19.8%), 3억원 이상(19.2%), 2억~3억원 미만(1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신혼부부 감소세는 지속됐지만, 평균 자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남 신혼부부는 3만445쌍으로 전년(3만1640쌍)보다 3.8% 감소했다. 초혼이 2만 1491쌍, 재혼은 8890쌍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5394쌍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4986쌍), 목포(3414쌍), 광양(3290쌍) 등 순이었다.

전남 초혼 신혼부부 중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8654쌍(40.3%)으로 전국 평균치를 한참 하회했다. 전남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75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2명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신혼부부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전남 각 지자체들이 지난해 주력했던 신혼부부 지원사업들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남지역 초혼 유자녀 신혼부부 중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부는 3132쌍으로 전체의 24.4%에 달했다. 4쌍 중 1쌍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셈이다. 전남과 신혼부부 수가 비슷한 강원(21%)과 충북(20.1%) 등을 상회하는 수치다.

전남 신혼부부들의 평균 소득은 5696만원으로 제주(5019만원), 전북(5496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았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연소득 5000만~7000만원미

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00만~1억원미만(20.3%), 3000만~5000만원미만(18.1%), 1000만원 미만(13.9%)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신혼부부들의 평균 소득은 낮은 수준이었지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84.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대출잔액을 구간별로 보면 1억~2억원미만(28.3%), 5000만원 미만(27.5%), 5000만~7000만원 미만(17.0%)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97만4000쌍으로 혼인 감소 등 저출산 기조의 여파로 처음으로 100만 쌍 이하로 떨어졌다.

이번 통계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 중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 무역의 날' 기념행사...38개 지역기업 수출탑·수출상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괄목할 수출 실적을 올린 지역 기업들이 수출탑·수출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10일 호태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2024 전남 무역의 날' 기념행사(사진)를 열고 38개 지역 기업들에게 수출탑과 수출상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최은모 광주전남기업협회회장,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성희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00만불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린 31개 기업이 수출탑을 수상했다.

7000만불탑 수상 기업은 ㈜이더블유 케이에 이치피시와 ㈜대창식품 등 2곳이다. 5000만불탑은 광양알루미늄주식회사가 받았고 2000만불탑은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가리미가 수상했다.

1000만불탑은 ㈜엠.이.시, ㈜스위코진강, 선일물산㈜, 어업회사법인(주)순수해작 등이, 700만불탑은 어업회사법인(주)영림푸드, ㈜해농, ㈜에스씨, ㈜명일, 농협회사법인(주)다솔 등이 받았다. 500만불탑은 ㈜디디케이가 수상했고 300만불탑은 ㈜성원, ㈜엘케이벤처스, ㈜투케이코퍼레이션, (유)성문, 맛나푸드 주식회사 등이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0만불탑은 어업회사법인(주)해초, 바이오코프



㈜, ㈜영신케이칼, ㈜해미로, 팬코스㈜, 농협회사법인(유)온빛, 대륙식품㈜ 등이고 100만불탑은 ㈜세일식품 농협회사법인, ㈜지분코스메틱, ㈜디엔티, 완도망영어조합법인이 각각 수상했다.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수출상 대상은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이 받았다. 우수상은 해송식품(주)어업회사법인과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장려상은 오성수산, 이엔테크(주), 농협회사법인(주)담우,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각각 수상했다.

이외 전남지사 표창과 대통령 표창 대상자들에 대한 수상도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저성장, 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에 힘쓴 수출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빛나도록 전남도가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 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공공형 계절근로운영 농협협의회' 창립총회



농협중앙회는 10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운영 농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총회에 따라 지역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일손 돕기에 나서게 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보내는 사업이다. <농협 제공>

리모델링 산단 어떻게 바뀌었을까...산업부 보고회 열어 성과 공유

강진 마량·대불산단 등 77곳 사업 공장 리뉴얼·환경 개선 등 호평

강진군 마량농공단지는 수산물 특화단지로 많은 노동자와 여초체협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비롯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청년문화센터와 근로자 치유원, 기숙사를 짓고 노후 공장 리뉴얼과 녹지 확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환경조성 사업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노후화되고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청년들의 유입이 어렵고 노동자들도 문화

생활에 대한 갈등을 감안, 최근 '작은 영화관'과 공동 세탁실, 복합문화센터를 지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산업단지 우수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산업단지는 기반 시설이 노후화와 문화·편의·정주 시설 부족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청년들이 기피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낙후한 산업단지를 청년 근로자들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도와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5년부터 1조3000억원을 투자, 복지·문

화·편의 시설 확충과 노후 공장 환경 개선,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청년 문화센터 30개, 아름다운 거리 조성 30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2개,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15개 등 총 77개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강진군 마량농공단지의 근로자 대상 문화생활 거점 구축, 대불국가산업단 복합문화센터의 건강·아하·문화예술·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단지 여건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사례가 공유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출연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내일의 CEO 꿈꾸는 여학생들 선배 여성 기업인에게 배운다

여경협 광주지회 프로그램 여성경제인 육성 효과 특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가 추진 중인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이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육성의 요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해지면서, 여성경제인협회의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 CEO 기업은 여성 근로자 고용률이 남성 CEO기업의 2.3배로,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은 경영자(CEO)를 희망 직업 상위권으로 꼽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희망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성공한 여성 CEO 롤모델의 부재와 상대적으로 여학생 대상 창업의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은 교육계는 물론 경제계도 주목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10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광주지회에 따르면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여성 기업인들이 미래의 여성 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한 젊은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배 기업인의 창업 비전을 설명하고, 노하우를 공유한다.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은 토크콘서트 형식의 여성CEO 특강과 '창업 검증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실천 창업 멘토링, 여성기업 현장 탐방, 통합 워크숍, 해외 기업과 산단을 탐방하는 글로벌 체험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구체화 할 수 있다.

올해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에는 전년(8억8700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한 16억 5700만원을 투입, 전국 30개 학교(여자대학 4개교, 일반여고 7개교, 특성화여고 19개교) 재학생 12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여경협 광주지회가 참여해 전남 여자상업고등학교,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올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협회는 참가자 만족도 목표를 80%로 잡았지만, 최종 만족도는 95%에 달한다.

높은 만족도는 수행기관인 여경협의 강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경협은 광주지회를 포함한 전국 19개에 1만개에 달하는(9300여개) 회원사를 활용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회 소속 선배 기업인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선배 기업인은 수시로 자문을 주며 사후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미지 여경협 광주지회장은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은 지역 내 미래 여성 인재 육성이 지역 여성 기업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여경협 광주지회도 앞으로도 지역내 예비 여성 창업인과 만나 지역 경제 상생발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0월 광주·전남 소비·투자·수출 모두 악화

한은 광주전남본부 실물경제 동향 경제지표 전년비 10% 안팎씩 줄어

지난 10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 등 주요 측면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모두 전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10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7.1로 전년 동월(113.1) 대비 10.2% 감소했다.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 지수가 11.4% 줄었고, 대형마트는 8.5% 감소했다.

이같은 소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소비 의향 등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여전히 기준점(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다, 11월에는 전월보다도 3.8포인트(p) 하락한 91.1을 기록했다기 때문이다.

광주 '부동산 한파' 역시 지속되며, 지역 경제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 건축착공면적은 10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0.2% 줄었고, 건축허가면적 역시 63% 감소했다는 점에서다. 건축면적 감소의 배경에는 주거용이 1년 새 154.4% 증가했지만, 대형 건축물이 포함된 공공주택 부대시설 등 기타 항목이 83.9%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더불어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10월말 기준 1270호, 준공용 미분양 아파트는 415호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수출액은 11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

월(13억 3000만달러)에 견줘 1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수·광산물, 화학공업제품 등 수출 규모가 작은 분야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수출 규모가 4~6억 달러에 달하는 기계류(-1.1%), 전자·전기(-29.5%) 등이 하락한 영향이다.

전남 역시 수요 경제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소비 측면에서 전남 10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1.6으로 1년 전보다 13.9% 감소했다.

건설투자에서도 전남지역 건축착공면적(-2.1%)과 건축허가면적(-72.5%)이 모두 줄었다. 건축착공면적은 주거용(-38.5%), 상업용(-20.6%), 공업용(-7.2%) 등이 일괄적으로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액은 10월 기준 33억 6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3.6% 감소했다. 분야별로 농·수·광산물(-13.1%), 석유제품(-43.7%), 화학공업제품(-15.7%), 기계류(-14.5%)가 줄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7.84	(+57.26)
↑ 코스닥	661.59	(+34.58)
↓ 금리(국고채 3년)	2.524	(-0.055)
↓ 환율(USD)	1430.70	(-6.30)
<small>(오후 5시 55분 기준)</small>		